

무형유산 특별공연 '장인의 발걸음'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서 악기장·방짜유기장 삶·작품세계 종합 연희극 형식 공연

전주시가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무형유산을 지켜온 장인들의 일생을 엿볼 수 있는 특별공연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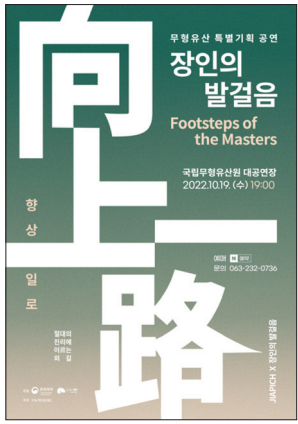
시는 19일 오후 7시 국립무형유산원 열쑤마루 대공연장에서 무형유산 특별기획공연인 '장인의 발걸음(부제: 향상일로 向上路 絶대 진리에 이르는 외길)'을 연다.

'장인의 발걸음'은 한국의 대표적 인 전통 타악기인 북과 징을 만드는 임선빈 보유자(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와 이종덕 보유자(전북무형문화재 방짜유기장)의 삶과 작품 제작과정을 소리꾼과 고수, 풍물패 등 각 분야 예술가들이 표현하는 종합 연희극 형식으로 꾸며진다.

이 공연은 무형유산 큐레이터 그룹인 (주)프롬하이(대표 설치희)가 문화재청의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게 된다.

박강의 감독이 총연출을 맡고, △음악감독 김백한 △기술감독 박종화 △영상감독 이정준 △안무감독 김주빈 △무대감독 윤현호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무형유산 보존과 계승, 발전을 위해 외길인생을 걸어온 인간문화재들의 '교류'와 '협력'이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시흥을 주무대로 활동중인



'장인의 발걸음' 포스터

임선빈 보유자와 전라북도 전주를 주무대로 한 이종덕 보유자와의 지역간의 만남, 기·예는 무형문화재와의 만남, 신세대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세대간 만남 등이 공연을 통해 펼쳐진다.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임선빈 보유자는 12살부터 60여 년간 북을 만들어 온 장인으로 이번 10월에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으로 인정받았으며, 2021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울림의 탄생'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방짜유기장 이종덕 보유자는 40년 동안 구리와 주석의 합금을 두드려 팽과리, 징, 그릇 등의 유기를 만들어 온 장인으로, 종교적 배움과 수행의 과정을 통해 삶의 울림이 담긴 좌종의 소리를 탄생시키고 있다.

지역·세대·종목 등 무형유산의 교류와 협력에 초점을 맞춰 기획한 이번 공연에는 송재영 전라북도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가 '실청가'를 선보이며, 조용안 판소리장단 보유자가 장단을 맞춘다. 전주기잡놀이도 합굿마을문화생산자협동조합의 풍물놀이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악기장 임선빈과 방짜유기장 이종덕의 생애는 소리꾼들의 재담을 통해 전달된다. 국립민속국악원 단원인 윤영진 소리꾼과 양혜원 소리꾼이 '북칠'과 '방짜'로 소리를 주고 받는다.

세악사 밴드(김은수·용리·강환수)는 방짜유기장 이종덕 보유자가 제작한 좌종을 중심으로 창작 재즈를 펼치며, 이순하는 대북 연주로 퍼포먼스를 펼친다. 안무가 김주빈이 이끄는 JUBIN COMPANY도 함께 해 장인의 삶의 길을 새롭게 해석해 선보인다.

이번 공연을 주관하는 설치희 (주)프롬하이 대표는 "악기라는 것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거

친 이가, 어떠한 마음으로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무대를 만들고 싶었다"면서, "이처럼 무형유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이와 쓰고 즐기는 이들의 역사이며, 곧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강의 총연출은 "진정한 울림을 위해 우직한 길을 걸었던 두 장인의 생애는 후대 예인들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두 장인과 무대 위의 아티스트 그리고 관객이 함께 만들어 낼 또 하나의 울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배원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는 풍부한 무형유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도시로, 지역의 문화적 강점을 활용해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며,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전승에 지원할 뿐만 아니라 무형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전주만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무형유산도시 전주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네이버예약(<https://bit.ly/장인의 발걸음>)과 전화(063-232-0736)를 통해 사전 예약 후 관람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은 18일 덕진체련공원 내 월남전참전기념비에서 열린 '월남전 참전 전주시 전사자 합동위령제'에 참석해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월남전 참전 호국영령 넋 기려

우범기 전주시장, 전주시 전사자 합동위령제 참석 유가족 위로

우범기 전주시장이 고국을 위해 월남전에 파병돼 싸우다 전사한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했다.

우 시장은 18일 덕진체련공원 내 월남전참전기념비에서 열린 '월남전 참전 전주시 전사자 합동위령제'에 참석해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날 위령제는 월남전참전 전주시지회(회장 김귀만)의 주최로 250여 명의 월남전참전 전우와 유가족, 보훈단체

관련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살풀이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추념사 및 추모사, 추모 헌시 낭송, 파월부대가 제창 등의 순으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추모사에서 "평화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월남전 참전 전사자분들의 헌신을 되새기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단속

전주시, 야간 상시단속반 가동... 연중 상시 단속·홍보도 추진

전주시가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야간 상시 단속반을 가동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채용된 8명의 상시단속반이 1주일간의 직무교육 및 단속을 겸한 현장 실무교육을 거쳐 19일부터 현장에 배치된다.

이들은 앞으로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 228곳 등 전주시역 곳곳에서 연중 상시로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 활동을 펼치게 된다.

4개조 8명으로 꾸려진 상시단속반은 주로 심야 시간과 새벽 시간에 원룸촌과 재래시장 주변, 공원 주변 등 불법투기 취약지를 중심으로 △각종 생활폐기물 투기 △규격병뚜 미사용 투기 △차량을 이용한 투기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

특히 시는 야간 상시단속반과 취약 지역에 설치된 500여 개의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 감시카메라로 확인이 어려운 투기행위나 감시카메라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자정형 투기행위에 대한 물샴 없는 단속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주민신고 접수와 포상금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속반이나 감시카메라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의 투기행위들도 꼼꼼히 단속하기로 했다.

동시에 시는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만큼, △지정계시대를 통한 홍보 현수막 게시 △전주시 공식 유튜브를 활용한 영상 홍보 △주민센터 통장 및 자생단체 회의 등을 통한 홍보 등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탄소중립 실천 웹툰 공모 31일 접수 마감

기후 위기 및 탄소중립' 관한 자유주제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전주시는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한 '전주시 탄소중립 실천 웹툰 공모전 접수'가 오는 31일 오후 6시 마감된다고 18일 밝혔다.

'기후 위기 및 탄소중립'에 관한 자유주제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의 참가 자격은 웹툰 전문업 관련 종사자를 제외한 지역·연령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응모작 접수는 1인당 1점으로 제한된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컴퓨터를 이용해 그린 웹툰뿐 아니라, 손으로 직접 종이에 그린 웹툰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선정된 우수작품에 대해 △최우수상 각 30만 원(4명) △우수상 각 20만 원(8명) △장려상 각 10만 원(16

명) 등 총상금 440만 원과 전주시장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발표된다.

접수 방법은 우편·방문·이메일로 가능하며, 작품 원본과 참가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누리집(www.jonj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281-270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주시 탄소중립 실천 웹툰 공모전을 통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 인지 제고와 탄소중립 실천 인식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며 "많은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보건소, '제21회 온고을 건강걷기대회' 개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온고을 건강걷기대회가 3년만에 다시 재개된다.

17일 전주시보건소(김신선소장)는 오는 29일 롯데백화점 앞 천변에서 '제21회 온고을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보건소가 주최하는 온고을 건강걷기대회는 시민들의 운동, 절주, 바른 식생활 등 건강생활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열리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중단된 뒤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이번 대회는 전주시민은 물론 전국의 걷기동호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건강홍보관을 체험한 뒤 가을이 물씬 내려앉은 전주천의 정취를 한껏 느끼며 함께 걷게 된다.

먼저 걷기 전 행사장에 마련되는 건강체험 홍보관에서는 △스트레스 측정 △음주위험 체험 △건강검진 홍보

관 △치매예방 홍보관 △정신건강자기관 등 다양한 건강관련 항목을 측정하거나 체험할 수 있다.

이어 분 행사인 건강걷기는 롯데백화점 앞 천변 야외무대에서 출발해 백제교와 사평교, 가련교 아래 전주천변을 왕복하는 1코스 4km 구간과 서신교 아래 천변까지 왕복하는 2코스 6km 구간에서 펼쳐진다.

걷기행사 후에는 버스킹 공연과 자전거 등 푸짐한 경품이 걸린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마련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일상걷기는 소소한 실천으로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전신운동이자,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운동"이라며 "시간과 장소는 물론 경제적인 측면까지 자유로울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걷기 실천으로 건강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소통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GIMJECITYCOUNCIL